

민관협치 우수사례 시리즈 3

2016년

충남도 민관협치  
우수사례 경진대회



우수상

내포문화 길  
조성

\*본 홍보물은 민관협치의 필요성과 방법론 확산을 위해 충남도에서 제작하였습니다.

# 내포문화숲길은

가야산 주변의 4개 시·군(서산시, 당진시, 홍성군, 예산군)을  
연결한 충청남도 최초, 최대의 장거리 걷기길로  
약 320km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

이 길은 내포지역에 남아 있는 많은  
불교성지, 천주교 성지, 동학, 역사인물 및 백제 부흥운동의  
흔적들이 남아 있는 옛길과 마을길, 숲길과 임도,  
들길, 하천길로 이어져 있습니다.



# 내포문화숲길은

내포지역이 지닌 역사, 문화,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

지금의 우리네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고,

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나눔과 성찰의 순례길로

2010년 조성되어 현재는 **총 4개의 테마길**

(원효깨달음길, 내포천주교순례길, 백제부흥군길, 내포역사인물동학길),

**26개 코스**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

사실 내포문화숲길의 역사는

민-관 간의 치열한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.

2007년 가야산순환도로, 가야산송전선로, 봉림리골프장

조성계획에 반대하여 '**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**'가 결성되었고

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갈등의 당사자로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.

시민단체는 골프장 건설계획의 허술함을 지적하여

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고 가야산순환도로 건설계획을

**'백제미소길'**로 **변경**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.



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이  
탄력을 받은 것에는  
행정의 결단이 작용합니다.

충남도는 도로 개설로 얻을 이익보다  
문화유적과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,  
시민단체의 **민·관 상생모델** 제안을  
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.



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는 관과 협력하여 산림문화숲길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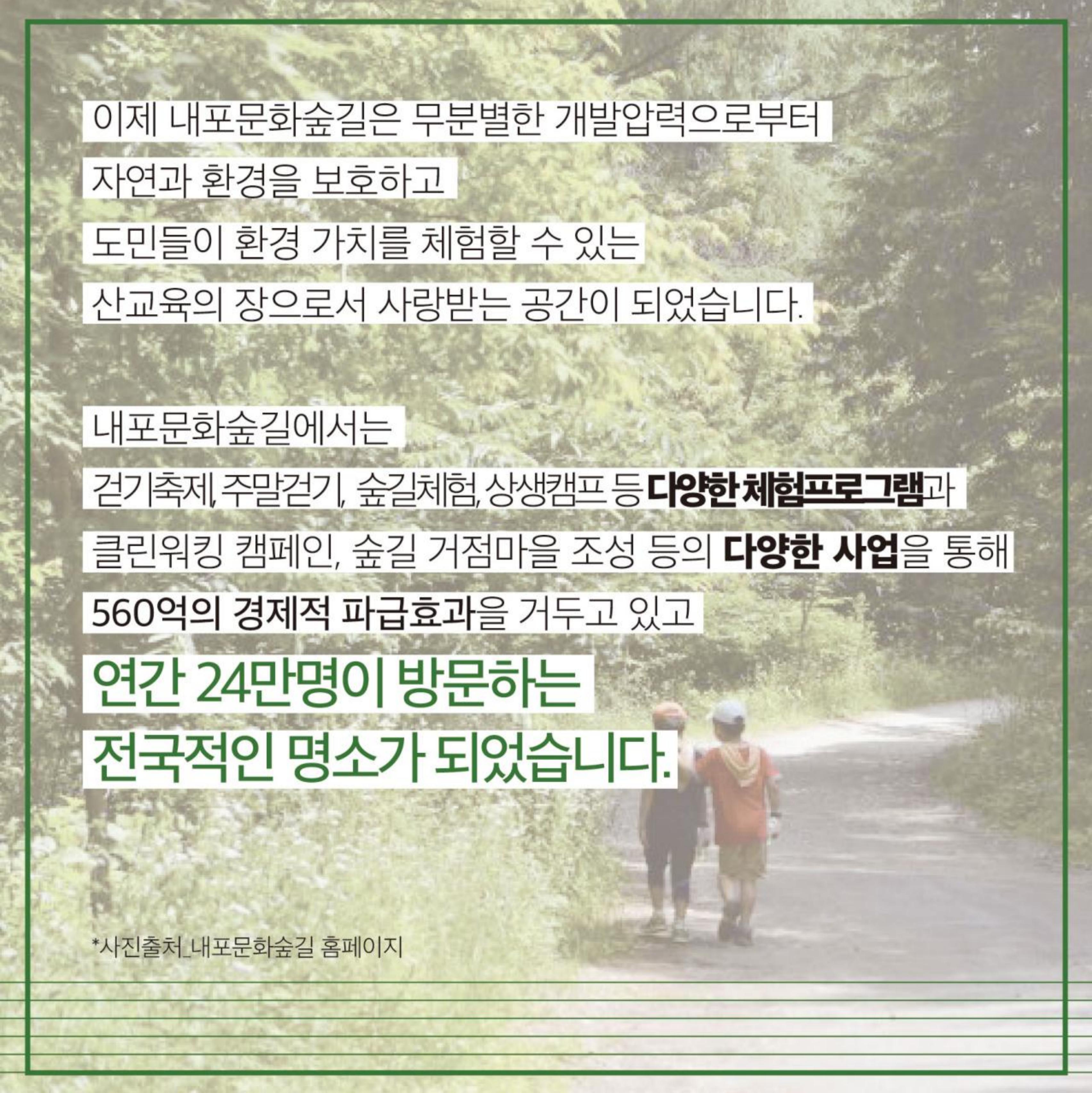
그리고 본격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·운영을 맡을

**(사)내포문화숲길을 창립**하게 됩니다.

이후 (사)내포문화숲길, 충남도, 서산시, 당진시, 홍성군, 예산군은  
내포문화숲길 협력위원회를 구성,

**내포문화숲길의 조성·운영·관리의  
전반적 사항을 협의·결정하는 협치기구를  
현재까지 지속적으로  
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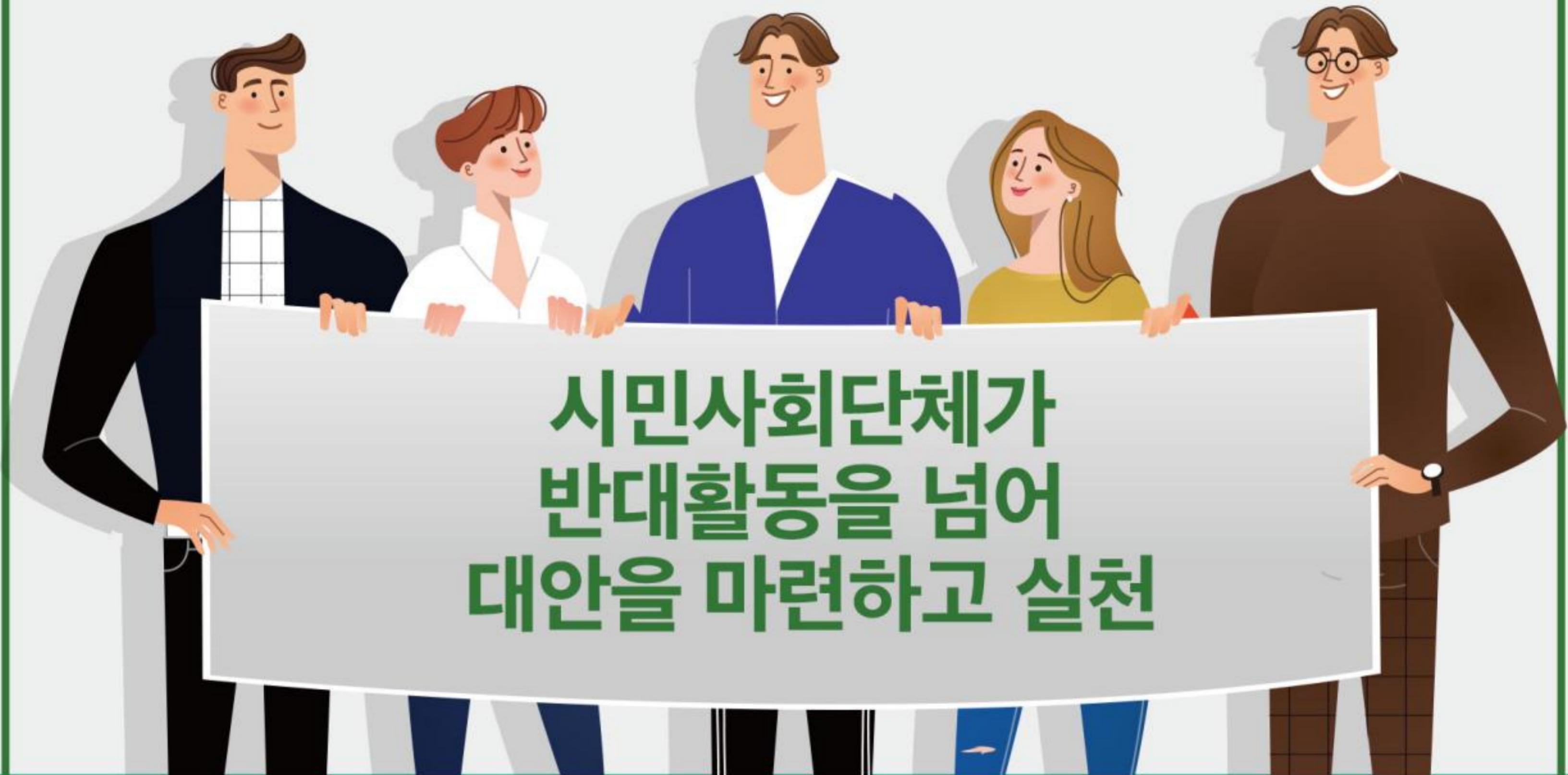


이제 내포문화숲길은 무분별한 개발압력으로부터  
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 
도민들이 환경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 
산교육의 장으로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.

내포문화숲길에서는  
걷기축제, 주말걷기, 숲길체험, 상생캠프 등 **다양한 체험프로그램**과  
클린워킹 캠페인, 숲길 거점마을 조성 등의 **다양한 사업**을 통해  
56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고  
**연간 24만명이 방문하는**  
**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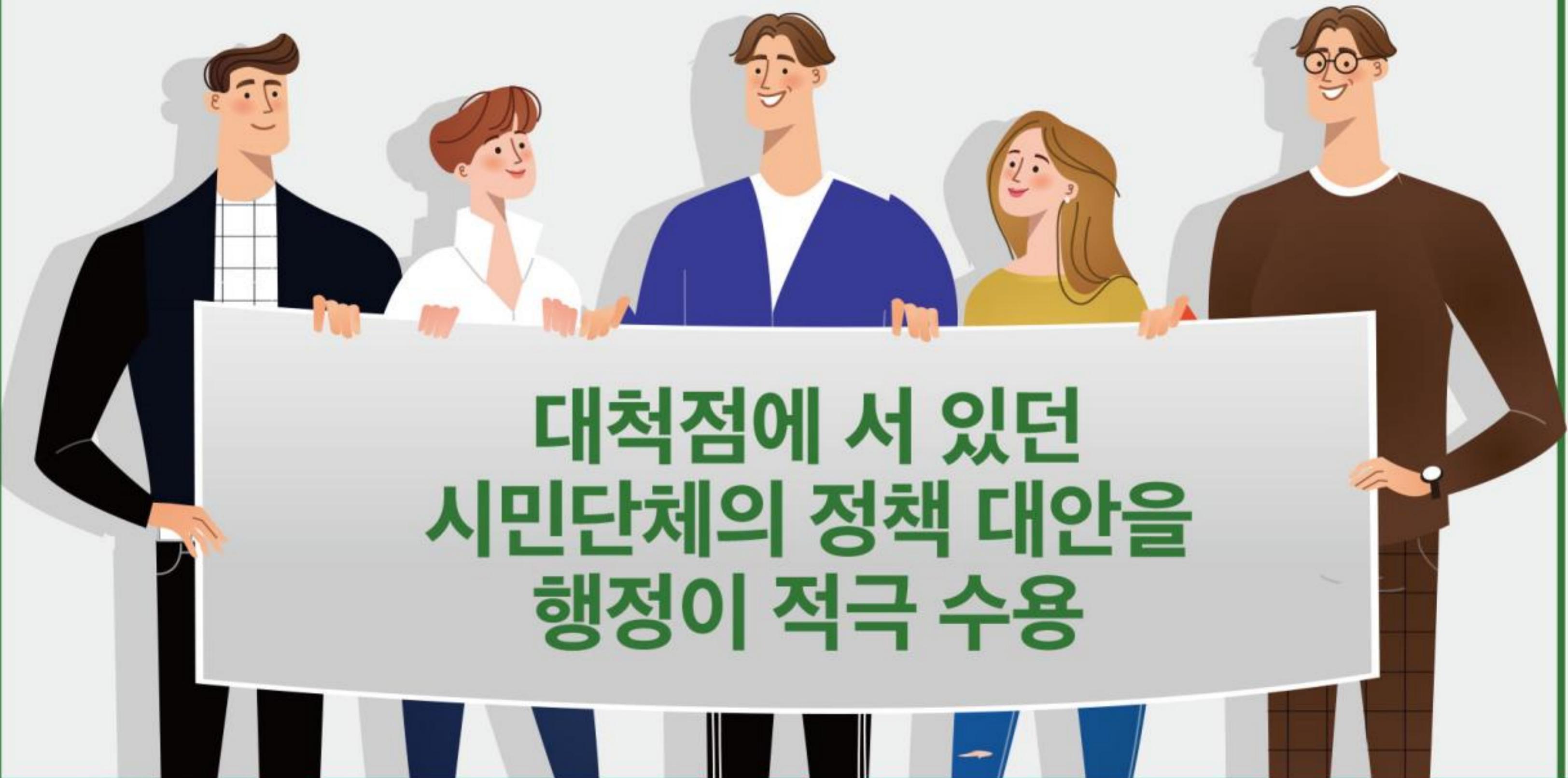
\*사진출처\_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

**내포문화숲길 조성**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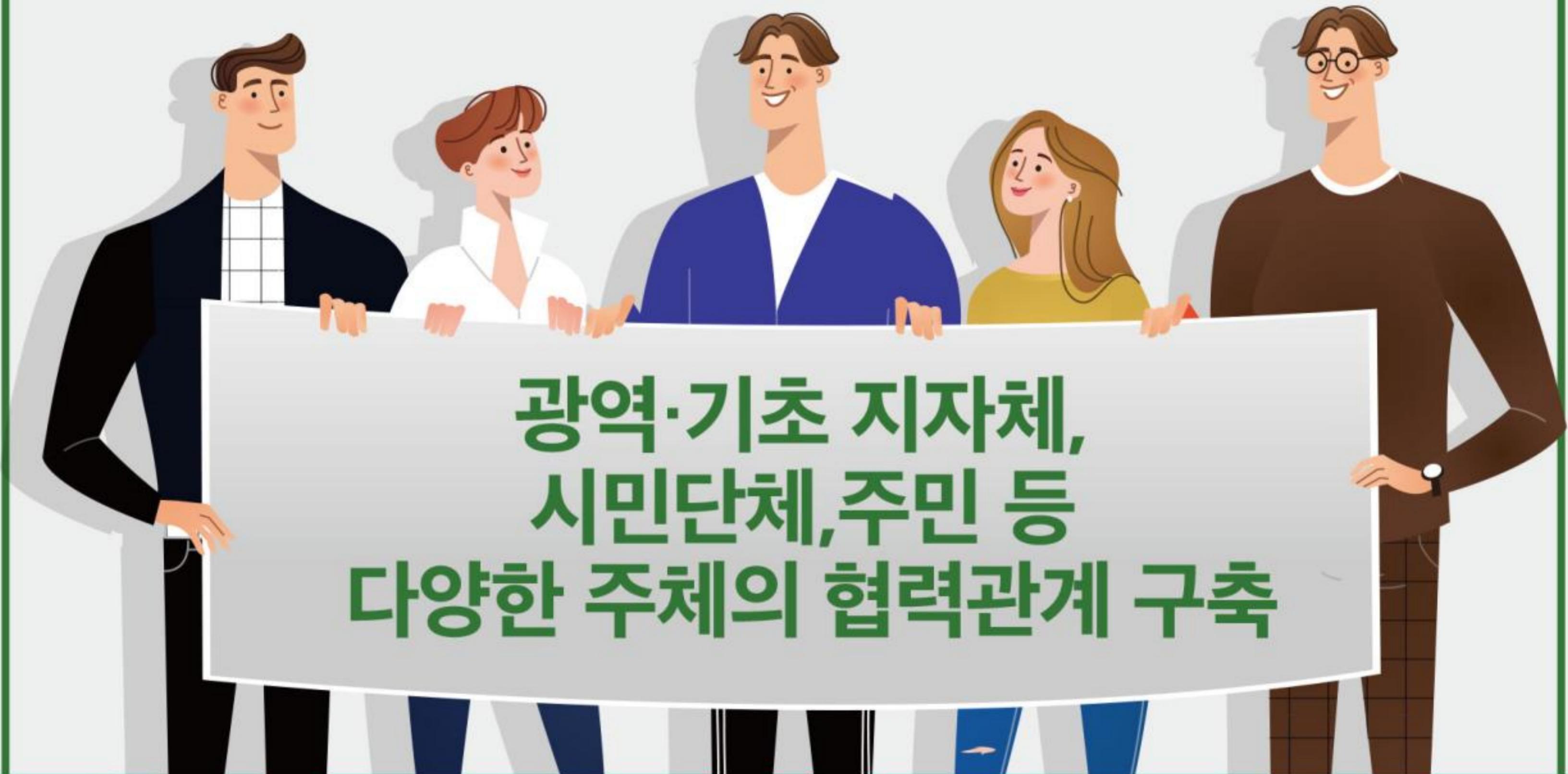
1

**내포문화숲길 조성**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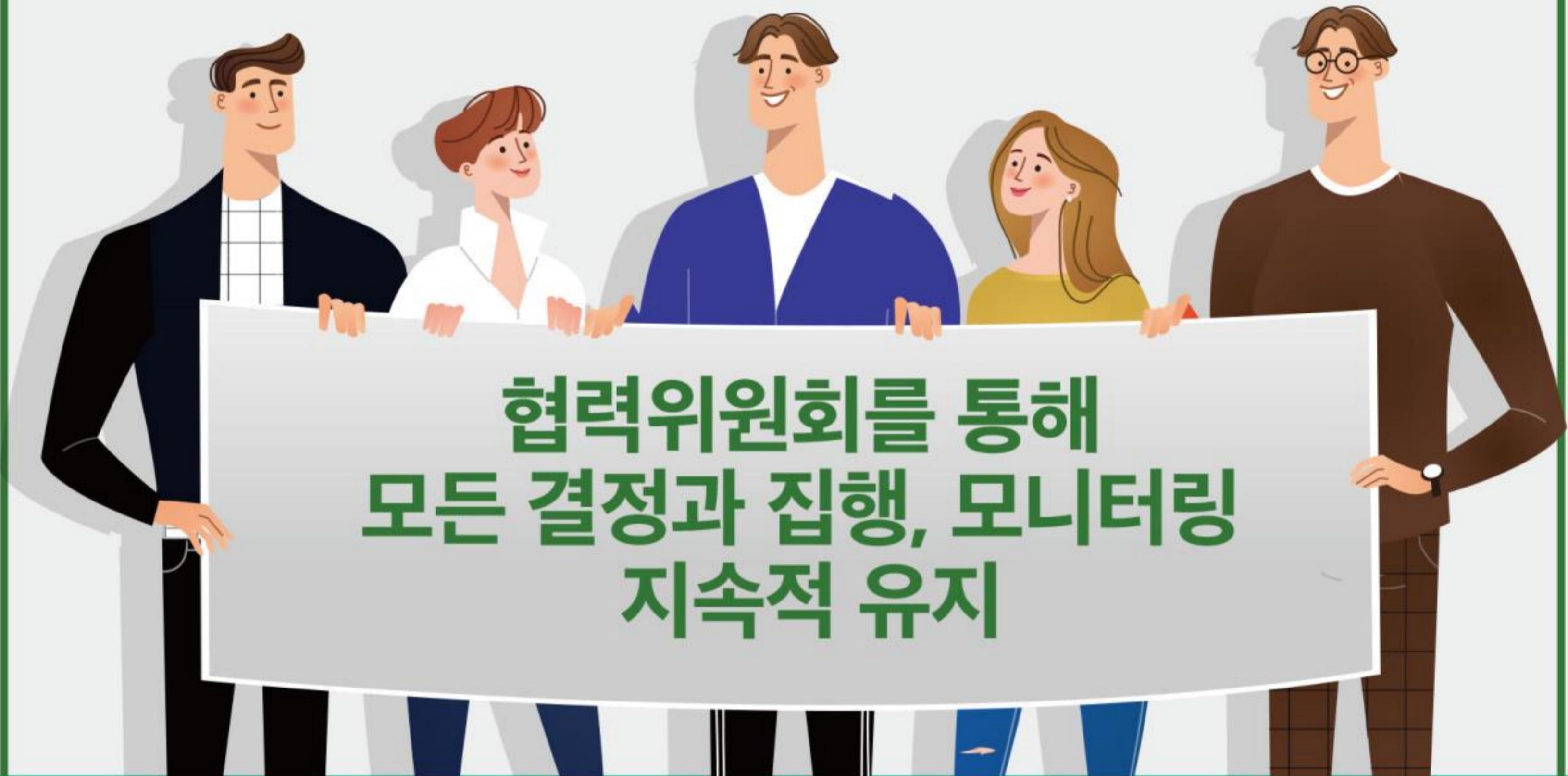
2

**내포문화숲길 조성**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,



3

**내포문화숲길 조성**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,



**4**